

나주시, 나주마한문화축제 10월 11일 개최

축제추진위, 주차공간 확대 등 개선사항 주문

나주시 최초로 전라남도 대표 축제분야 '유망축제'에 선정된 나주마한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3일간 국립나주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나주마한문화축제는 1~4세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마한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축제다.

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지난달 28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린 1차 추진위 회의를 통해 제5회 나주마한문화축제 개최 날을 오는 10월 11일로 최종 결정했다고 30

일 밝혔다.

역대 최대 관광객 수인 16만5천여 명을 기록한 제4회 나주마한문화축제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기념행사, 문화 체험부스, 전시·홍보전 등은 향후 회의를 통해 적극 보완해가기로 했다.

박근구 역사관광과장은 "전남도를 대표하는 유망축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마케팅조민관 339-8721)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강인규 시장,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실시

11일 남평읍 시작...경로당·기업체 등 방문 현황 청취

강인규 시장은 시민과의 진솔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읍·면·동 연두 순방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11일(월) 오후 남평읍을 시작으로 26일 성북동, 빗가람동까지 총 11일 간 지역 현안 점검 및 민의 수렴을 위한 20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당일 오전 10시, 오후 15시부터 1회 또는 2회에 걸쳐 이뤄지는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7기 주요 시정 설명 및 읍·면·동정 보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 시장은 개회에 앞서, 읍·면·동 관내 경로당, 보육시설, 기업체 등을 사전 방문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격식과 의전을 간소화하는 대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등 생산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강인규 시장은 "시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사소한 의견과



지 귀담아 듣고, 실속 있는 대화의 장을 구현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은 시

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히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나주시-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5년 간 54개 사업 양성평등 실현 위한 정책 발굴·추진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된 후 지난 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여성, 아동, 노인 자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지역 정책 개발 과정 등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이에 따른 혜택을 지역민이 고루 누리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과 사회적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협약서에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상호 협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광환 부시장은 "이번 협약식이 지역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1일 시청 현관에서 나주시 여성친화 서포터즈 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나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운용...평일·공휴일 비상근무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월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병행,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관내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 총 21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등산객이 많은 금성산 등산로 주위에 깃발 315점을 각각 설치했으며, 매일 4회에 걸쳐 산불예방 방송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67명을 선발하고, 주요 등산로 및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배치해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봄철 논·밭에서 행해



지는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정 산림공원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 수호를 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며, "산불은 예방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산불을 목격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각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보호팀 정상현 339-7224)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시 등지

16번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완료... '혁신도시 시즌' 마침표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빗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계획 마지막 주자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이 지난달 28일 신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 11월 첫 삽을 쫀 빗가람 혁신도시는 13년여 만에 16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 참여정부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시즌'을 마침내 완성했다.

강인규 시장은 이날 오경태 농기평 원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나주시립극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김선용 의의장과 시의원, 공직자들도 축하하는 임직원들에게 장미꽃을 일일이 전달하며 환영 인사에 동참했다.

강인규 시장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빗가람 혁신도시가 비로소 완전체,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면서, "농업과 식품산업, R&D분야 최고의 공공기관이 호남을 대표하는 농업도시 나주로 이전하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한다"며, 빗가람 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오경태 원장도 "혁신도시에 마지막으로 이전했지만, 나주와 함께 상호 발전하고, 농식품 R&D 분야 최고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이전 포부를 밝혔다.

빗가람 혁신도시는 농기평 이전에 따라, 한전,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기능군(群) 4개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생명 기능군 5개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방송통신 기능군 4개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 기능군 2개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금융 기능군 1개 기관으로 총 16개 공공기관 입지를 완료했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이민준 부의장, 한전공대 나주 확정 환영

세계적 최고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 기원

이민준 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0일 한전공대 부지가 나주 부영 CC 일대로 선정된 것과 관련,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에서 한전공대를 나주시 빗가람동 일원에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200만 전남도민, 나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전공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한전 공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전남도와 선의의 경쟁을 펼쳐 왔던 광주시와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부지결정으로 한전공대가 202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뗀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세계적인 석학과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연구 환경을 갖춰 한전공대를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전시켜 광주·전남 상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전공대가 당초 계획된 2022년 3월 개교 일정대로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나주시, 월 2회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

한전KPS·aT·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월 2차례에 걸쳐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한다.

시는 최저임금 및 건물 임대 가격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월2회)에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전KPS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매월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하며,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이번 구내식당 휴무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크기가 크고 선명한 노란색을 띄면 신선한 배!

나주 저산농산물 기본축은맛

고마운 분들에게 나수(나수)로 마음을 전하세요.

NAVER 오색마을 검색 | 홈페이지 : <http://www.fivecolor.co.kr>

NAJU 나주시